

창의도시 소식 및 활동

알-하사, 사우디 아라비아

비다, 나이지리아

김해, 대한민국

퀴타히야, 튀르키예

와가두구, 부르키나파소

파두카, 미국

산타페, 미국

퀴타히야, 튀르키예

국제무대의 퀴타히야

2017년부터 퀴타히야는 공예 및 민속 예술 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의 정회원이 되었다.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에 가입한 이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퀴타히야의 장인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지식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통 공예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치니(Çini)는 퀴타히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예술 형태인 타일 창작으로, 우리 도시의 상징이자 외부 세계에 우리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공예와 민속 예술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여정을 나누고자 한다.



피어나는 불 속의 꽃들

치니는 점토, 고령토, 백악(회백색의 연토질 석회암), 석영(수정)과 같은 원료를 일정 비율로 섞어 빚어진 몸체를 조각하고, 건조시키고, 장식하고, 유약을 바르고, 소성하여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이다. 게다가 터키의 전통 문양을 표현하고 다른 도자기 제품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지역 및 국제 사업

쿠타히야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회원으로서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열린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 시는 2021년 9월 쿠타히야 에블리야 첼레비(Evliya Çelebi) 사진 협회와 협력하여 스페인 마니세스(Manises)가 주최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투어" 전시회에 참가했다. 쿠타히야를 소개하는 다섯 장의 사진이 전시에 사용되었다. 2021년 10월에는 세계 도시의 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2021년 11월에 일본 하마마츠(Hamamatsu) 시에서 구축한 글로벌 시퀀서 애플리케이션(Global Sequencer application)에 음향 녹음 파일을 전송했다.



UCLG를 향한 우리 계획의 일환으로, 쿠타히야는 2021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제2차 UCLG중간도시 세계 포럼을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중간도시가 그들의 도시 기반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팬데믹 직후 열린 중간도시 세계 포럼에서는 전 세계로부터 86개 도시와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그들의 경험과 다양한 문화를 공유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첫 번째 만남이었던 이 행사는 포럼 그 이상이었고, UCLG 도시들의 재상봉이었다.

퀴타히야 시의 범위 안에서는:

1. "튼튼한 미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퀴타히야 프로젝트"가 개발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타겟 그룹의 요구에 따라 하나 이상의 타겟 그룹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가 강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격리되었던 외로운 기간 동안 우리를 하나로 모아 주었다. 프로젝트 파트너들은



퀴타히야 주지사, 퀴타히야 뒤물루피나르(Dumlupınar) 대학교, 퀴타히야 상공회의소, 그리고 퀴타히야 도자기, 사진가 및 수공예 협의회이다. 약 2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니와 패턴 디자인, 영어 학습, 협동 훈련, 소셜 미디어 관리 등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2. 전통적, 역사적, 문화적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원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유닛 맨션'은 우리 지역의 장인과 예술가들의 협력하에 운영되고 있다. 캔들 워크샵, 구리 직조 기술 및 보석 디자인 워크샵, 아프리카 바구니 직조 워크샵과 같은 다양한 교육들이 이 저택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름 내내 열렸다. 또한, "튼튼한 미래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쿠타히야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이 저택에 영구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3. "쿠타히야의 디지털화 및 창의성 생태계 개발 프로젝트"가 EU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산업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패턴과 형태 디자인의 부족, 제품 표준화의 부재, 무역의 구조적 문제, 브랜딩의 결핍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의 회원인 쿠타히야에서는 타일 산업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범위 내에서 창의성 센터가 설립될 것이다. 쿠타히야 뒤물루피나르 대학교, 자퍼(Zafer) 개발청, 쿠타히야 상공회의소, 쿠타히야 도자기, 사진가, 수공예품 협의회가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었다. 우리는 여러분이 도시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쿠타히야의 치니와 도자기 타일을 감상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Hazal BABUR

(Project Manager for Kütahya Municipality's UCCN project)

Hümeyra TEMEL DÜVER

(Project Manager for Kütahya Municipality)